유물·유적

차 례

1. 탕구통
2. 성터
3. 야초대장
4. 효자비
5. 포제단
6. 봉수대와 협자연대

1. 탕구통

옛날 제주도는 물이 흐르던 곳이 없었고 특히, 제주도 동쪽에는 화산회토이기 때문에 물이 다 스며들어 물이 귀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여지책으로 고인 물을 식수 혹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가뭄이 들면 물은 금방 말라버렸고, 물이 떨어지면 곧 양식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느껴야만 했다. 그래서 고성리 마을에 옛날 한문서당과 한약방을 경영했던 정경용 씨가 물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수맥을 찾아내어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을 파내었는데, 이를 탕구통이라 한다.

두레박을 제주어로 '탕구'라 하는데 탕구에 끈을 매달아 물을 길었다. 탕구통은 지금으로부터 약 6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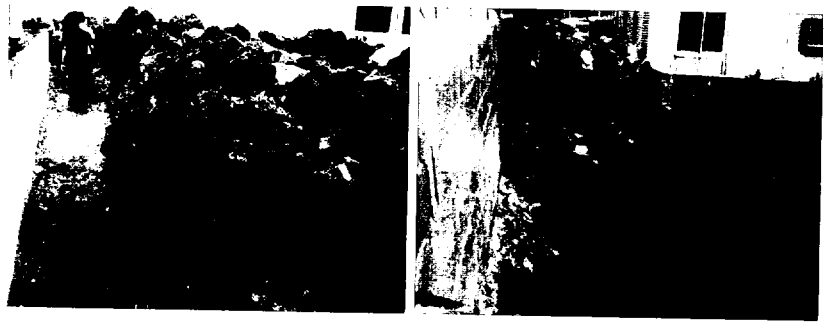
있다. 현재는 탕구통 앞에 있던 물ᄀᆌ방의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정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위치: 성산읍 고성리 2168-1번지 어귀에 있고, 현 주소에 있는 집의 오른쪽에 탕구터가 있고, 왼쪽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기념비 규모: 세로 83cm, 가로 33.5cm, 두께 17.5cm

2. 성터(남문부분)

조선시대 정의현이 첫 도읍지였던 이곳은 1417년 현청이 어느 한 지역으로 치우쳐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금의 성읍리로 옮겨졌다. 그 후로 오래된 성이란 뜻의 고성이라 불렸으며 현재는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표석조차 세워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집과 집사이의 담을 쌓기 위해 성벽의 돌들을 빼버리거나 밭으로 드나들기 위해 돌을 버리는 등의 훼손행위가 극심했다. 이전에는 성의 폭이 자동차가 오고가고 할 정도였지만 지금의 성터는 아래의 사진처럼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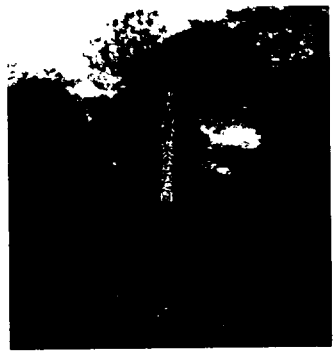
3. 야초대장

야초대장은 고성리의 토지소유주들을 밝혀 놓은 책이다. 책이 발간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며 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 내에서 발간한 것이다.

야초대장은 한 권을 3권으로 분리하여 각각 122, 48, 65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겉표지는 흑표지 내지는 창호지로 쓰여 있다. 4·3 이후 섭지코지를 1번으로 시작하여 고성리와 신양리의 모든 토지소유자들을 적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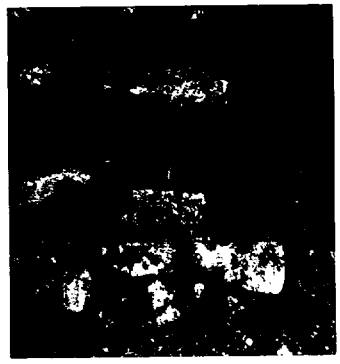
4. 효자비

현재 수산리에 위치한 효자비는 조선시대의 충효자인 홍달한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원래 효자비는 세로 약 62cm, 가로 약 33cm, 두께 약 10cm의 작은 크기이며 효자비의 정문(홍살문)은 썩어 없어졌다. 이에 홍달한의 후손들이 효자비가 풍상에 지워져 감을 안타깝게 여겨 세로 약 332cm, 가로 약 143cm, 두께 약 48cm의 크기로 그 우측에 새로 세웠다.



<기존의 효자비>

새로 세운 효자비의 뒤편에는 홍달한의 생전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 속에 홀어머니를 모신 그는 성품이 곱고 성실하였다. 어머니의 봉양도 극진히 하여 어머니의 악성종기를 입으로 빨아 낫게 하고 중병을 앓으실 때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 약에 타드렸으며 변, 오줌을 맛보아 병의 차도를 알아 볼 정도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무덤 옆에 여막을 지어 묘를 지키고 산담을 쌓았으며 이어서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도 치렀다. 또한 숙종이 승하하시자 매달 초하루 보름에 다랑쉬오름에 올라 성의 교지가 내려졌으며 그 후 정2품의 품계와 관직이 내려졌다. 영조 25년(1749)에 그가 죽자 이 비를 세워 후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새로 세워진 효자비>

본래 고성리의 사람인 홍달한의 묘가 수산리에 세워진 것은 효자비가 세워진 곳이 제주목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사람의 통행이 잦았기에 홍달한의 효행을 쉽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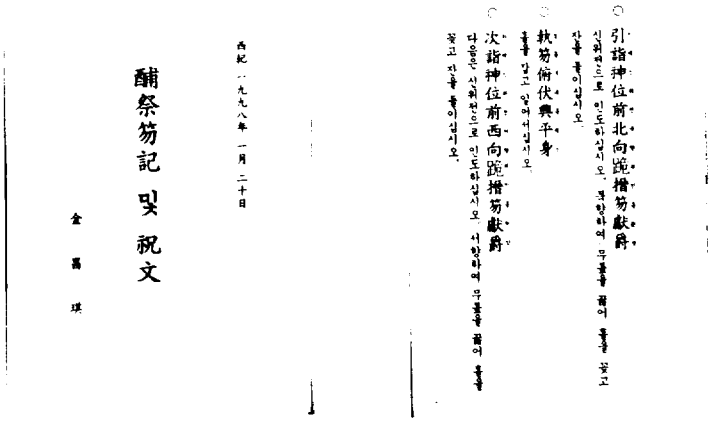
5. 포제단

고성리의 두신 국신지령과 사명대신에게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고자 포제 총회를 포제단에서 지냈다. 포제단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는데 좌측의 제단(가로 170cm, 높이 26cm, 세로 30cm)은 국신지령을 모시는 제단이고, 우측(가로 159cm, 높이 29cm, 세로 51cm)은 사명대신을 모시는 제단이다. 일각에서는 두 개의 제단을 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에 예전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포제단의 좌측에는 임시 제관들이 머무는 장소가 있는데 가로길이 651cm, 높이 75cm, 세로 414cm로 돌담으로 둘러져 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어 포제단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적어졌지만 예전에는 어둡기 전부터 올라와 뜸(바람막이)을 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서 비가와도 쉬어 갈 수 있어 머물러 가곤 했다.

포제단 주변의 포제굴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지나가고 나무들이 무성하다. 전에는 말과 소들이 와서 풀을 뜯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없었다. 움푹 패이고 포제단도 밋밋해서 마을 주민들이 조림하여 좋은 나무들도 생겨나고 현재의 삼림형태로 유지하게 되었다. 포제단에서는 3일 정성을 들여 제관들이 합숙하면서 부정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몸을 청결하게 하여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였다. 포제단에서 올리는 제는 매해 정월 날짜를 택하여 포제 청회를 열고 축문을 읽으며 제를 지냈다. 포제 총회는 포제 제물을 바르게 봉함으로써 제관들이 세 번에 걸쳐 확인한다. 대추, 쌀, 떡, 촛대, 고기 등등 19가지 재물을 신에게 바쳤다. 정본기가 끝나면 헌관과 제관을 정하였으며 헌관에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집

례, 대축, 알자, 찬자 등 열두 제관이 있다.


酺祭笏記 및 祝文

金 昌 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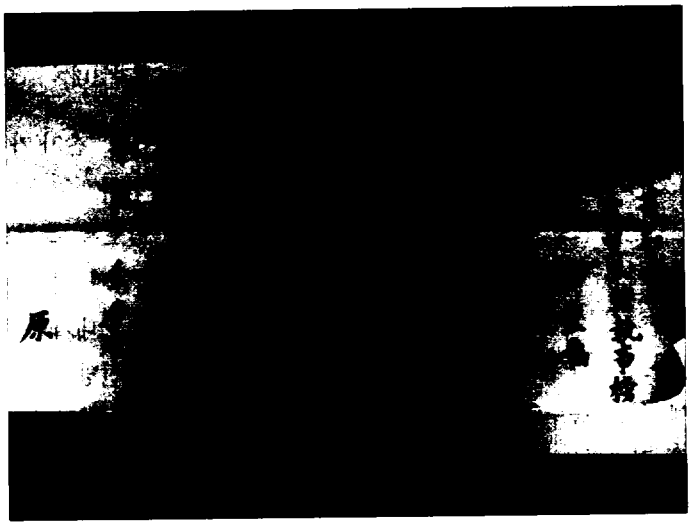
西紀 一九九八年 一月 二十日

○引詣神位前北向跪搢笏獻爵
신위전으로 인도하십시오. 북향하여 무릎을 꿇어 돌을 꽂고 잔을 돌이십시오.

○執笏俯伏興平身
홀을 잡고 엎어서십시오.

○次詣神位前西向跪搢笏獻爵
다음은 신위전으로 인도하십시오. 서향하여 무릎을 꿇어 돌을 꽂고 잔을 돌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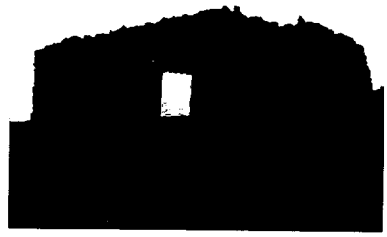
마을 곳곳의 평화와 안락, 민생, 안녕을 위해 생명을 다스리는 사명대신, 나라의 신 국신지령에게 기원을 하였다. 기원문을 낭독하고 제물을 칼로 자르고 향을 피워 제를 끝낸다.



6. 봉수대와 협자연대

고성리의 큰몰뫼라는 산에 봉수대가 있는데, 이 봉수대의 이름이 따로 없어서 큰몰뫼를 한자로 대수산이라 부르고 봉수대를 대수산봉이라 칭하였다. 대두산봉의 봉자는 봉우리 봉자가 아닌 봉수대의 봉자를 딴 것이다.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불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했으며 정의성과는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해안을 감시하기 보다는 다른 봉수대로부터 신호를 받아 정의성에 연락을 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수산봉수>



<협자연대>

봉수와 봉수사이에는 바닷가 동산의 연대가 존재하는데 고성리에는 바다 쪽으로 코를 내민 듯한 협자연대가 존재한다. 협자연대는 제주도 방언으로 '형'이 '성'으로 바뀌듯이 'ㅎ'이 'ㅅ'으로 바뀌고 'ㅕ'가 'ㅓ'로 바뀌어 '협'자가 '섭'자로 바뀌고 '손자'가 '손지'로 바뀌듯이 '자'가 '지'로 바뀌어 섭지코지라 불리기도 한다.

연대는 판석으로 층층이 쌓아 횡력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축석되었고, 원형이 대체로 잘 보존 되어 있는 상태다. 연대는 오늘날과 같이 통신시설이 발달하기 이전 적의 침입과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방화소나 수집소 등으로 빠르게 연락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오름의 봉우리에 있는 봉수와는 달리 연대는 대부분 해안 구름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으로 접근하는 아국의 배를 자세히 관찰하는 동시에 필요시에는 적군과 전투를 하기 위한 요새처럼 기능을 갖추기도 한다.

■조사자: 김대철(04), 남은자(04), 김진희(04), 고성혁(05), 강하은(07), 라윤근(07), 곽미강(07)